

추 도 사

원공당 정무큰스님!

평생 공부와 봉사를 해야 한다시며 몸소 실천하시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시고, 청하는 자리가 있으면 장소를 불문하고 왕림하시어 감로법을 설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 역시 스님의 뜻을 기리는 아름다운 법회의 자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전장 큰스님 회상에 출가한 이래로 큰스님께서는 한시도 수행과 포교의 본분사를 등한시하신 적이 없던 이력과 귀감중에서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대중교화를 위해 힘쓰신 일입니다. 스님께서 다녀간 곳곳은 이미 스님의 자취가 탄탄히 자리잡아 불자들의 정진이 수련회의 틀로 발전하였고 누구나로 하여금 수행과 공부를 함께 해야 한다는 제반 기틀이 잡혀져 왔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면 천지만물의 은혜를 알게 되고, 천지만물의 은혜를 알게 되면 물건이든 시간이든 어느 하나 낭비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스님의 생활은 언제나 검소하고 청빈하였습니다. ‘편리함을 쫓는 마음이 가장 큰 수행의 걸림돌이자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며 작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출가하신 이래 50년간을 백장청규 정신으로 일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면서도 여분의 보시금이 생기면 항상 대학생과 청소년 불자들에게 쾌척하시며 후학들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더불어 이생의 숨결 마지막까지 항상 탁마를 멈추지 않으셨던 수행의 귀감은 따로 일러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바로 유지이고 후학에 대한 가르침으로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이제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빈과 강단의 수행자, 정무 큰스님!

지난 8월 회향법문에서 ‘바른 생활을 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바른 정신을 지니는 불자들이 되라’고 부촉하셨으니, 이제 도솔천 계시더라도 목마른 중생들은 스님의 자취를 따라 수행과 정진에 게으름이 없겠습니다.

인연따라 오셔서 바르고 정직하게 열심히 수행하시고, 평생을 은혜를 갚고, 봉사하는 삶을 보여주셨으니, 아직도 스님의 감로법문을 청하는 중생은 이를 수행과 정진의 지표로 삼아도 충분할 듯합니다. 석남사 주련에 쓰신 것처럼 ‘서운산 아래 금광루에서 부처님 광명 다시 빛내기’위해 빛으로 돌아오셔서 후학의 정진에 흐뭇한 미소로 화답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불기2555(2011)년 11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